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4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녹) 연중 제14주일

2024년 7월 7일 (제2089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토/일(8am~4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예제 2,2-5

화답송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2독서 2코린 12,7L-10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음 마르 6,1-6

영성체송 시편 34(33),9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성가]	8시	입당	5	봉헌	510	성체	151	파견	452
	11시	입당	329	봉헌	217	성체	197	파견	431
연중 제14주일	7월 7일(주일)			7월 9일(화)	7월 10일(수)	7월 11일(목)	7월 12일(금)	7월 13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김미숙 말가리다	이명국 바오로	황해정 데레사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사목회		
독서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최윤기 유스티노 황선희 세실리아	이명련 파트리샤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이성연 베로니카	윤춘주 세레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미사 전 기도 안내

- 미사 전 기도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과 공동체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 7월 13일(토) : 사목회

■ 7월 성경 통독

- 코린토 후 : 1,1-4,18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조상희 마리아, 정화봉 로사,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 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율리엠타, 이은자 마트로나,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임희숙 세트리다, 박진영 베드로, 유낙양 베로니카, 김옥자 마리아. 김관수 요한보스코

■ 밥나눔 안내

- 오늘은 첫 주일인 관계로 밥나눔이 없습니다.
- 밥나눔 봉사 메뉴 신청이 충분하지 않은 주에는 앞으로 밥나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밥나눔 봉사를 하실 분은 사무실에 연락해주세요.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 회의 : 7/7(일) 12:30 교육관 106호
- 사목회의 : 7/7(일) 1:30 교육관 106호
- 샌리앤드로 : 7/14(일)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7/14(일) 교육관 107호

■ 명랑운동회

- 일시 : 7월 21일(일), 밥나눔 후
- 대상 : 70세 이하 교형자매님이면 누구나

■ 북가주 성령대회

- 일시: 8월 10일(토), 오전8:30-오후 6시
- 장소: 새크라멘토 한인천주교회
- 신청: 본당 성령기도회

■ 여성 15차 꾸르실료 빨랑카

- 8월 1일(수)-4일(토) 꾸르실료를 위한 빨랑카 접수를 친교실에서 받습니다.

■ 안나요아킴 라인댄스- 셋째주, 넷째주 밥나눔 후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식탁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성경봉사자 선서식

- 일시: 7월 11일(목), 저녁미사 중

■ 대건관 사용 안내

- 대건관에는 총 4개의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구역회이나 단체 모임을 사무실에 신청 후 사용을 바랍니다.

- 대건관: 대건관 1호, 2호, 3호, 4호, 소성당

■ 안 쓰는 성물 수집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물을 성당 입구에 마련된 박스 안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해주세요

- 본당에는 청소 용역이 없습니다. 각 단체 모임이나 구역 모임 후에 나오는 쓰레기를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대건관 4호실 칸막이 작업을 해주신 김문환 베드로, 조현석 프란치스코, 김학철 요한 형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대건관 지붕 보수 공사와 성당 음향시설 작업을 해주신 이영길 안드레아 형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베네딕토 (7/11) : 조관식, 임석호
- * 베네딕타 (7/11) : 정정식, 정수영
- * 베로니카 (7/12) : 김복희, 이경란, 하숙연, 유낙양, 이성연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김대건 신부님 마지막 편지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만물을 지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까닭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있더라도 쓸데없습니다.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어찌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겠습니까.

밭에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춰 밭을 갈고 거름을 주며, 더위에도 몸의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름다운 씨를 가꿉니다. 밭 거들 때에 이르러서 곡식이 잘 되고 여물면, 땀 흘린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기뻐합니다.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고 밭거들 때에 빈 대와 껍질만 있다면, 주인은 땀 흘린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시간 때문에 그 밭을 박대합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을 벼로 삼으며,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물 주시어 자라고 여물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문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물지 못하였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이라 하더라도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알아들으시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내려와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운다 한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승천 후 사도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두루 무수한 어려움 중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에 교회가 들어온 지 오륙십여 년 동안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교우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오늘날 박해가 불길같이 일어나 여러 교우들과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여러분까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차마 이별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했고, '모르심이 없이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어찌 이렇듯 한 박해가 주께서 하고자 하신 일 아니면, 주님의 상이나 주님의 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과 마귀를 공격합니다.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해서, 마치 용맹한 군사가 무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있음과 같이 하여, 우리도 싸워 이겨냅시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도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을 거두시기까지 기다립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해갑시다.

여기 감옥에 있는 20인은 아직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편지글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 그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전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공을 착실히 닦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영어미사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		45명	166명	211명					
주일헌금		2차헌금		영어미사	교무금	Bishop's Appeal	황금빛 인생	감사헌금	성소	빈첸시오	선교
8시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교무금] 임윤택(6), 김영자(7), 전윤자(7-8), 김원덕(7), 김옥준(5-6), 최경숙(5-6), 이범준(6), 강수영(7), 송인환(6-7), 박호영(7), 조관식(4-6), 김원조(4-6), 김복희(7-8), 이상훈(7-8), 임병선(6), 신궁진(7-9)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7/7(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7/7(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장민우	익명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이은자 마트로나	임유지 비비아나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황성국 베드로	황선희 세실리아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김원덕 시몬/안젤라	김엘리사벳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강보나	순배 수산나
	연	조숙자 바올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이필형 필립	이에스터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권주선 다니엘	이에스터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권영섭 요셉	이에스터
	연	김마르코	가족		생	김옥희 헬레나	엠포트리샤
	연	김정탁요셉/김화순안나	가족		생	신부님	임유지 비비아나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생	김관수 요한보스코	임유지 비비아나
	연	이소남	앤디 박		생	천다니엘/아네스	심데레사
	연	홍숙자	정혜경 데레사		생	황말찌나	심데레사
	연	이홍태 알비나	이에스터		생	이 줄리	양신옥 안나
	연	연옥영훈	이에스터				
	연	신빈센치오/올리에다	요아킴 안나회				
	연	신빈센치오/올리에다	김엘리사벳	7/9(화)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신빈센치오/올리에다	최세레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신빈센치오/올리에다	윤사비나		연	한동설 안젤로	한계순 안젤라
	연	신빈센치오/올리에다	이성재 베드로가족		연	김창훈	이에스터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박영자 클라라	요아킴 안나회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이에스터
	연	박영자 클라라	유낙양 베로니카		생	이명국 바오로	익명
	연	신우현 빈센치오	김원조 도미니꼬				
	연	신정열 올리에다	김원조 도미니꼬	7/10(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Edward Hyun Kang	강신호 요한		연	한동설 안젤로	한계순 안젤라
	연	강현	조비실리오/모나셀라		연	박영자 클라라	박헬레나
	연	강현	이골롬바		연	신빈첸시오/올리에다	박헬레나
	연	강현	양인심 엘리사벳		연	김창훈	박헬레나
	연	강현	임석호 분도				
	연	김창훈	엠포트리샤	7/11(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창훈	이골롬바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아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스 가족		연	한동설 안젤로	한계순 안젤라
	연	박인식 베드로	조카타리나		연	김창훈	이에스터
	연	이봉규	이중규 미카엘				
	연	심병중	이골롬바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이건용 요셉	임유지 비비아나				
	연	지장숙 사비나	임유지 비비아나	7/12(금)	연	한동설 안젤로	한계순 안젤라
	연	한동설 안젤로	한계순 안젤라		연	김창훈	이에스터
	연	한동설 안젤로	이정연 골롬바				
				7/13(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송아네스
					연	한동설 안젤로	한계순 안젤라
					연	김창훈	이에스터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이은자 마트로나	임희숙 세트리다
					생	임희숙 세트리다	임봉윤 가족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iulia.kim@kw.com</p>	<p>폴킴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